

# 부상 공백 메운 홍종표...KIA 질주 힘 보탠다



KIA가 그라운드 안팎으로 달라진 분위기 속 뜨거운 봄날을 보내고 있다. 풀부상 속 기회를 얻은 홍종표도 수비와 주루로 신바람 질주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KIA 타이거즈 제공)

### 4경기서 3루타 등 5안타 '화끈한 신고식' ... "수비·주루 집중할 것"



"나도 저 분위기에 끼여보고 싶었다." 새 사령탑으로 새 판을 짠 KIA 타이거즈가 뜨거운 봄을 보내고 있다. '주장'이자 타석의 핵 나성범을 시작으로 연이어 부상자가 나오고 있지만 KIA는 착실하게 승리를 쌓아가고 있다.

부상을 이겨낸 KIA의 초반 질주의 이유, 홍종표(사진)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일 1군에 콜업된 홍종표는 부상과 부상이 겹치면서 기회를 얻었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사구 여파로 쉬어가게 되면서 박민이 7일 삼성전에서 시즌 첫 선발 출장에 나섰다. 하지만 박민도 3경기 만에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파울플라이 타구를 잡기 위해 혼신을 다한 질주를 했던 박민은 관중석에 무릎을 부딪치면서 부상자가 됐다.

이러 홍종표가 박민의 자리를 채웠다. 홍종표는 1군 콜업과 함께 11일 LG전에서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고, 첫 타석에서부터 1타점 3루타를 날리며 화려한 시즌 신고식을 치렀다.

홍종표는 지난해 선발로 4경기에서 나서 5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안정감 있는 수비 실력을 보여줬다. '믿음'이 바탕이 된 기회가 홍종표를 춤추게 했다.

이범호 감독은 홍종표를 콜업하면서 "시합용 선수다. 무대에 올려놓으면 잘하는 선수다"며 기대감을 보여줬고, 기회를 받은 선수는 경기력으로 응답했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시즌이 펼쳐지면서 절대 자리 없는 조용하고 공정한 경쟁이 팀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나가 된 덕아웃 분위기도 선수들을 춤추게 하고 있다. '믿음의 야구'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베테랑까지 모두 하나가 돼 서로를 응원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그 모습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물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보인다.

홍종표는 "TV에서 봤는데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저 분위기에 끼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올해는 뭔가 다른 것 같았다. 올해는 하고자 하는

것 같았다"고 관람자로 지켜본 팀을 이야기했다. '1군 덕아웃'을 목표로 차분하게 시즌을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은 홍종표 활약의 이유이자, 올 시즌 KIA의 달라진 부분이다.

1군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종표는 "캠프를 못 간 것은 딱히 신경 안 썼다. 내가 위에 있던 밑에 있던 야구하는 것은 똑같다. 보는 눈은 똑같으니 열심히 하다가 때가 되면 불려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면서 열심히 했다"며 "퓨처스 팀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감독님, 코치님, 선배, 친구, 후배들 모두 분위기가 좋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잘할 수 있었다. 루틴을 잘 지키면서 꾸준히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좋은 분위기에서 '기본'을 생각한 게 또 다른 동력이 됐다. 1군 콜업과 함께 아무진 방향미를 보여준 홍종표지만 사실 공격이 아닌 '수비'에 초점을 맞춰 시즌을 풀어나가고 있다.

홍종표는 "망망이 딱히 신경 많이 안 쓰고 수비할 때 집중하면서 했다. 좋은 수비 뒤에 좋은 타격이라고 한다. 그걸 신경 쓰니까 타격은 알아서 나오는 것 같다. 예전에는 폼적인 것 등 타격에 너무 많이 신경 썼다. 그런 걸 버리고 수비에 더 전념하니까 알아서 타격은 따라왔다"며 "야구적으로 바꾼 것은 없고 멘탈을 바꾸니까 알아서 따라오는 것 같다. 수비를 잘해야 타격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수비에 신경 쓰면서 타격에서도 결과를 낸 홍종표는 시즌 첫 타석의 전율을 잊지 못한다.

홍종표는 "첫날 스타팅이라는 걸 확인하고 많이 긴장했다. 첫 타석에서 (한)준수 형이 2루에 있었으니까 보내주자는 생각으로 우측으로 공을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체인지업이 떨어져서 컨택했었던 게 좋은 타구가 나왔다. 3루타 짜릿했다. 오랜만에 느껴본 전율이었다.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첫 경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홍종표는 꾸준하게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홍종표는 "부상 선수를 많아서 빨리 올라왔는데 동료들 뒷까지 책임감 있게 더 간절하게 하겠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비다. 똑같이 수비에서 집중하면서 하겠다. 수비 다음이 주루다. 베이스가 커져서 주루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며 "방망이는 워낙 잘 치는 형들이 많으니까 나는 수비와 주루에 신경 써서 상대를 흔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샤프트페터부르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운데)가 1회 득점한 뒤 팀 동료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4타수 2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 시즌 5번째 멀티히트·7경기 연속 안타·4경기 연속 득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이정후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 디포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이정후가 빅리그에서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하는 동시에 타점과 득점을 함께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멀티 히트는 시즌 5번째다.

이정후는 7경기 연속 안타와 4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3출루 경기는 시즌 세 번째다.

타점은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이후 13경기 만에 나왔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58(66타수 17안타)로 올랐다.

이정후는 마이애미 우안 선발 에드워드 카브레라를 잘 공략했다.

1회초 6구째 직구를 받아쳐 시속 96.9마일의 하드 히트로 좌중간으로 보냈다. 다만 1사 후 도루를 시도했다가 마이애미 포수 닉 포르테스에게 잡혔다.

마이애미 카브레라는 역투를 이어가며 2, 3회는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이정후는 0-3으로 끌려가는 4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답답한 흐름을 깼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다음 볼 4개를 골라내 멀티 출루에 성공했다.

이후 호르헤 솔레르의 우전 안타 때 3루까지 났었고 마이클 콘포토의 적시타 때 홈으로 들어

왔다. 이정후는 5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7회에 또 한 번 해결사 역할을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카브레라가 내려간 7회초 패트릭 베일리의 희생플라이로 2-3으로 추격하던 닉 아메드의 볼넷으로 2사 1·2루 기회를 이어갔다.

다음 타자는 이정후였다. 마이애미는 이때 투수를 교체하며 이정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정후는 바뀐 투수 앤드루 나르디를 상대로 파울 타구 3개를 때린 끝에 7구째 직구를 밀어 쳐 동점 적시타를 터뜨렸다.

기세가 오른 샌프란시스코는 월터 플로레스의 역전타로 4-3으로 앞선 채 7회를 마쳤다.

이정후는 9회 1사 1루에선 몸쪽 아래 싱커에 루킹 삼진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리드를 지켜 4-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KIA, 특별 유니폼 입고 아이돌 시구하고

### 주말 NC 3연전, 아이엠프 스튜디오 브랜드 데이 등 풍성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19일부터 진행되는 NC 다이노스와의 주말 홈 3연전에서 '특별 유니폼'을 착용한다.

KIA는 19-21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와의 첫 시리즈를 '아이엠프 스튜디오(IAB STUDIO) 브랜드 데이 시리즈'로 치른다.

지난 시즌 아이엠프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유니폼과 의류를 출시했던 KIA는 이번 시리즈에서 팀 상징인 검은색과 노란색을 활용한 특별 유니폼을 선보인다.

유니폼은 상의, 하의를 모두 검은색으로 해 일체감을 강조했으며, 노란색을 포인트로 해 호랑이의 강렬함을 표현했다.

KIA는 아이엠프 스튜디오와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아이엠프 스튜디오 타이거즈 색(IAB STUDIO TIGERS SACK)'을 선물한다.

'IAB를 찾아라' 이벤트를 통해 챔피언스 필드 내

'외부에서 I, A, B 스펠링을 찾아 자신이 함께 나온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경기 중 전광판 이벤트, 응원단상 이벤트에 참가하는 팬들에게도 경품이 주어진다.

KIA의 승리를 기원하는 릴레이 시구도 준비했다. 20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이민우 씨가 시구자로 나선다. 이씨는 2014년 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 거의 모든 홈경기를 아버지와 함께 찾고 있는 타이거즈 '전팬'이다. 이씨는 이날 아버지와 함께 시구와 시타를 하며 KIA 승리를 기원한다.

21일에는 아이돌 팬타곤의 우석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시구를 한다.

광주 출신인 우석은 "고향팀의 시구를 하게 돼 영광이다. 승리요정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우석은 팬들과 이닝 교대 시간에 진행되는 이벤트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콜 팔머 4골 '원맨쇼'...첼시 8경기 '무패'

### EPL 33라운드, 에버턴에 6-0 대승...21일 맨시티와 FA컵 4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4골을 몰아넣으며 '오버 헤트트릭'을 기록한 콜 팔머의 원맨쇼 대승을 거뒀다.

첼시는 16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3-2024 EPL 33라운드 홈 경기에서 에버턴을 6-0으로 대파했다.

첼시는 최근 8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3골(총 23골)에 육박하는 득점력을 뽐내며 무패 행진(4승 4무) 중이다.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오른 첼시(승점 47)는 21일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강전을 앞두고 사기를 끌어 올렸다.

팔머는 경기 시작 3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역습 상황에서 니콜라 잭슨과 2대1 패스를 주고

받은 팔머는 전반 13분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원발 슈팅으로 골대 구석을 찰라 선제포를 터뜨렸다.

5분 뒤에는 잭슨의 원발 슈팅이 선방에 막혀 나오자 그대로 문전으로 쇄도해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9분에는 에버턴의 빌드업 상황에서 페널티 지역을 벗어난 골키퍼가 수비진에게 패스한 공을 자른 뒤 약 35m의 오른쪽 장거리 슈팅으로 골문을 갈라 헤트트릭을 작성했다.

전반 44분에는 잭슨도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쪽 슈팅으로 골 맛을 봤다.

팔머는 4-0으로 앞선 후반 19분 노니 마누에게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원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자신의 네 번째 골을 기록했다.

리그 20골 고지를 밟은 팔머는 엘링 홀란(맨시티)과 득점 랭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후반 45분에는 엘보 길크리스트가 오른쪽 페널티 지역에서 가까운 골대 구석을 찰라 오른쪽 슈팅으로 6-0 대승을 완성했다.

재정 규정 위반으로 승점 2가 추가 삭감된 에버턴의 강등 위기는 계속됐다.

16위 에버턴은 승점 27에서 제자리걸음 했다. 강등권인 18위 루턴 타운(승점 25)과의 승점 차는 2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